

##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문제 고찰

박혜진\*

### 〈 차 례 〉

- I. 서론
- II. 국어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한자어의 특성
- III. 『언어와 매체』 교과서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제시 양상
- IV.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활용 방안
- V.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자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검토하는 한편,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한자어의 형태론적 특성을 고찰한 결과 한자어는 형태소로서, 그리고 단어 형성 요소로서 ‘비전형성, 다기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 결과 이러한 특성이 단어 형성 단원의 각 국면에서 한자어를 배제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시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을 추론할 수 있었다.

문법 개념은 언어 현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학습자는 그 개념을 적절

---

\* 서울대학교 시간 강사

논문의 방향에 공감해 주시고 귀한 의견을 보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교한 지적과 조언이 거친 글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고견들은 추후 다른 자리를 통해서라도 성실히 풀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게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학습자는 획득한 개념을 스스로 확장하고 언어 현상을 해석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언어 현상들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전형적 사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특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자어 관련 내용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학습의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자어를 제시하는 것이 단어 형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임을 주지하였다. 그리고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활용 방안으로 '교육적 수월성을 고려하여 한자어 사례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자어 접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안, 표현 국면의 교육 내용을 설계할 시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를 초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I. 서론

### 1. 문제 제기

국어 어휘의 대부분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혹은 이들의 혼합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한자어<sup>1)</sup>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어휘의 약 60%로<sup>2)</sup>, 고유어나 외래어와 비교하여 그 비중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한자어는 새말 형성과 같은 공식적 언어생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말의 어휘 자원이다.<sup>3)</sup> 이처럼 국어 언중의 언어생활에 한자어가 관여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그간의 단어 형성 교육 내

---

1) 일반적으로 한자어는 그 기원에 관계없이 국어 어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고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구분관 외, 2016: 153)을 의미한다. 본고의 '한자어'도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2) 『표준국어대사전』(2016년 통계 기준) 수록 어휘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8.5%이다.

3) 2014년 기준 신어 형성에서 한자어는 고유어와 비교하여 약 2배의 생산성을 보였다. 또한, 복합 원어의 경우에도 한자어에 고유어 또는 외래어가 결합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국립국어원, 2014: 27-28).

용은 고유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 한자어가 언중의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단어 형성 교육에서 한자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이미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 더 정확히는 합성과 파생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식 체계에 한자어를 아울러 기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한자어는 제한적, 소극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교과서 집필자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어 형성 교육에서 한자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이다. 이에 본고는 단어 형성 교육과 관련한 한자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국어 어휘 체계 내 한자어의 위상, 새말 형성소로서의 한자어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처리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국어교육 안팎에서 꾸준히 이어졌다(노명희(2006), 윤구희(2009), 남가영(2013), 이관희(2015), 안소진(2018), 이규범(2019), 박혜진(2019ㄴ) 등). 윤구희(2009)는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가 배제되는 자리를 낯선 고유어들이 차지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낯선 어휘를 이해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지게 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관희(2015), 안소진(2018), 박혜진(2019ㄴ) 역시 언어생활에서 한자어가 접하는 위치, 한자어의 조어력, 교육의 실제성 등을 고려할 때 단어 형성 교육에서 한자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중 안소진(2018)은 한자어 형태론에 대한 합의가 미진한 현실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여<sup>4)</sup>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어 형태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심리적 실재성을 가진, 즉 국어 어휘로서 인지 가능한 한자어 목록을 추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노명희(2006)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국어교육으로서의 한자어 교육과 한문 교육으로서의 한자 교육이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국어 화자의 어휘부에 직접 저장되어 공식적인 단어 형성의 재료가 되는 기능 단위 한자가 교육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하고,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분석 단위에 대해서는 어휘교육 차원에서 이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주지연(2017), 이규범(2019)은 단어 형성 교육 내용 중에서도 형태소 인식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교육의 수월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한자어 형태소에 대한 명확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분석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3. 연구 방향 및 절차

이상 살펴본 선행 논의들은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가 배제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한자어 문제에 주목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머물거나, 제시한 해결 방안이 추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를 어떤 방향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 사례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

---

4) 이러한 지적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본고는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 즉 ‘언어 현상(사례) 중 덜 합의된(비전형적인) 지점을 교육 내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있던 배경에 대한 ‘교육적 맥락’의 고찰이 섬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교육적 변인들을 고려한 구체적 대안 역시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더 정확히는 단어 형성 교육의 관점에서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문제를 고찰하고, 단어 형성 교육 내용으로서 한자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국어 단어 형성론에서 논의 되는 한자어 관련 주요 쟁점을 점검한다. III장에서는 한자어 단어 형성과 관련한 이론적 쟁점에 더하여 교육의 목표 및 방법 등 교육적 맥락을 두루 고려하여 『언어와 매체』 교과서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제시 양상을 분석한다.<sup>5)</sup> 마지막 IV장에서는 II, III장의 논의를 토대로 단어 형성 교육에서의 한자어 활용 방안을 제안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 II. 국어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한자어의 특성

이 장에서는 국어 단어 형성론에서 논의되는 한자어의 특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특히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로 한자어 단어 형성을 다룰 시 이론적으로 쟁점이 되는 지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이론적으로 쟁점이 된다 함은 상대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지식으로 남아 있음을

5)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단어 형성 관련 교육 내용은 ‘초등 5~6학년군 문법 영역’, 심화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에서 다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 중 중등 교육 단계에 해당하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언어와 매체 교과서 중 검정을 통과하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5종으로, ‘민현식 외(2019)(천재교육), 최형용 외(2019)(창비), 이삼형 외(2019)(지학사), 이관규 외(2019)(비상교육), 방민호 외(2019)(미래엔)’이 이에 해당한다.)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교육적 맥락과 만나 단어 형성 단원에서 한자어 사례를 선정하고 조직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sup>6)</sup>

6차 교육과정기까지 문법 교과서의 단어 형성 단원은 ‘한자어의 단어 형성’을 별도의 부분으로 제시하였으나, 7차 교육과정기부터는 한자어의 형성을 따로 다루지 않는다. 한자어 고유의 문법으로 새말이 조어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 한자어가 국어 어휘에 들어와 국어 어휘 형성의 언어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sup>7)</sup> 한자어의 형성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 역시 ‘국어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한자어를 고유어와 함께 다루는 통합적 방식이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단어 형성을 통합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한자어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 1. 한자어 형태소 분석의 범위

국어 단어 형성론에서 한자어를 다룰 때 쟁점화 되는 첫 번째 문제는 형태소 분석의 국면에서 찾을 수 있다. 국어에서 한자어 대부분은 ‘健康(건강), 勉學(면학), 休學(휴학)’과 같은 2음절 구성체로서 단어의 지위를 갖는다.<sup>8)</sup> ‘일정한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형태소의

6) 그것이 1:1의 전수 관계는 아닐지라도 단어 형성 교육의 이론적 기반이 이론 문법, 즉 국어학적 차원의 단어 형성론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바 한자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7) <2014 신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어 중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신어는 전체의 17.01%를 차지한다. 고유어만으로 조어된 단어가 전체의 5.97%, 한자어만으로 조어된 신어가 전체의 13.4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4: 28).

8) ‘산(山), 강(江), 덕(德)’ 등 1음절 자립 한자어, ‘신(新)-, -족(族)’ 등 한자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이들 단어는 ‘건-강, 면-학, 휴-학’과 같이 각 음절에 형태소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국어 언중의 머릿속에서 한자어를 구성하는 모든 음절들이 ‘형식-의미’의 짝으로서 독립된 표상을 갖는 것은 아니기에 한자어 형태소 분석 문제, 특히 2음절 한자어의 형태소 분석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sup>9)</sup>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자어 형태소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장치를 설계하는 방법’, ‘화자의 직관 즉 심리적 실재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하게 한자어 형태소를 다루는 방법’ 두 방향의 접근이 가능하다.<sup>10)</sup> 외부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인 형태소 식별 기준을 만들고자 한 Nida(1949), 한자어 형태소 판별을 위한 도식을 설계한 주지연(2017)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한다.<sup>11)</sup> 이 같은 이론적 판별 장치는 다양한

---

어 접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자어는 2음절 구성체로서 국어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1음절 자립 한자어, 한자어 접사의 경우 분석의 대상이 아니기에, 결국 형태소 분석 문제, 단어 분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들 비자립 어근으로 구성된 2음절 한자어들이다.

- 9) 현행 학교 문법과 국어 한자어 연구들에서 한자어 구성 요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형태소 자격을 줄 수 있음에 대한 느슨한 함의를 이론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의 경우 한자형태소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를 본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한자 형태소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논의도 여전히 존재한다(주지연, 2017: 69).
- 10) 제시한 두 가지 접근 방법 간 상호 배타적 관계를 상정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형태소의 지위를 이론적으로 판명하든, 화자의 직관에 의존하든 그 근본적 기준은 ‘분포, 기능,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등으로 동일하다. 다만 개별 언어 주체의 주관적 인식에 무게를 두는지 규약을 통한 이론적 약속에 무게를 두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11) Nida(1949)는 미지의 언어들에 대한 분석에도 적용 가능한 형태소 식별의 과정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형태소 분석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고자 한 접근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Nida(1949)의 논의에 기반하여 형태소 판별 도식을 만들고, 이에 따라 한자어 형태소를 판별한 주지연(2017) 역시 이론적 접근의 예라 할 수 있다. 그는 화자의 직관은, 특히 한자에 대한 화자의 직관은 개별 화자에 따라 매우 다를 수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인 형태소 분석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나, 화자의 직관과 맞지 않는, 다시 말해 특정 화자에게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가공의 형태소를 분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교육의 장면을 고려하는 본고는 한자어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화자의 직관, 즉 의미 단위로의 인식 가능성’ 또한 분석의 주요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그런데 ‘화자의 인식’을 형태소 분석의 기준으로 고려하게 되면 개인의 어휘력 및 한자 지식 등에 따라 지나치게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개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안경(眼鏡)’과 ‘상자(箱子)’를 모두 한자어로 인식하고, 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의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활발한 분포를 보이는 ‘안경’은 분석적으로 인식하되, ‘상자’에 대해서는 분석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한자 지식, 계열관계를 고려한 분석적 인식력 등이 낮은 경우라면 안경과 상자 모두를 분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sup>12)</sup>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는 한자어의 인식 강도, 즉 심리적 실재성에 따라 한자어를 분류하되, 이들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 함을 제안한 안소진(2011)을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어 가운데에도 기능 단위(function unit)<sup>13)</sup>에 가까운 실재성을 지니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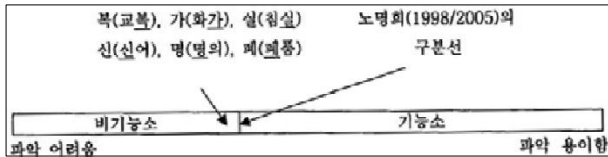
---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 보고 이와 같은 장치들 설계하였다.

- 12) 제시한 가상의 사례는 ‘상자’에 비해 ‘안경’의 분석 가능성이 높음을 전제 한 것이다. ‘안경’의 경우 관련 한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안구(眼球), 안압(眼壓), 노안(老眼)/수경(水鏡), 반사경(反射鏡), 망원경(望遠鏡)’ 등 관련 어휘들과의 계열관계를 통해 각 음절이 분석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어 어휘 내에서 분포가 제한적인 ‘상자’의 각 음절은 한자 지식 없이는 분석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상자’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 13) 기능 단위(function unit)는 한자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는 것(주로 음



위들이 있는가 하면 분석적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2음절 한자어도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상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비기능소 중에서도 분석적 인식 가능성이 낮은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분석적 인식 가능성에 따른 한자어의 유형(안소진, 2011: 114)

[그림 1]은 2음절 한자어가 ‘계열관계, 통합관계를 통한 파악이 용이하고 심리적으로도 분석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부터 ‘계열관계, 통합관계 파악이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분석적 인식이 불가능한 것’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자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음절의 분포 특성에 따라, 혹은 화자의 한자 지식 정도에 따라 형태소로의 분석 가능 정도가 유동적이다. 따라서 형태소 분석과 관련한 교육 장면에 한자어 사례를 제

절 단위로 분석됨과 차원을 달리하여 국어에서의 실제적인 쓰임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한국어 화자의 어휘부에 직접적으로 저장되어 공식적인 단어 형성의 재료가 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기억 단위와 일치한다(노명희, 2006: 473). 아래 체계에서 볼 수 있는 바, 2자어를 구성하는 비자립 어근들은 그 자체로는 비기능소이며 결합된 형태 전체가 하나의 기능소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가. 기능소 I : 학교(學校), 우정(友情), 정(情), 처가(妻家), 처(妻)...

나. 기능소 II : 분명(分明), 엄밀(嚴密), 철저(徹底)...

다. 기능소 III :

① 접두기능소: 대(大)-규모, 무(無)-의미, 불(不)-평등, 신(新)-개발

② 접미기능소: 국가-적(的), 경영-인(人), 개방-성(性), 과학-자(者)

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특성을 어떤 방향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2. 생산적인 한자어 단어 형성 요소의 다기능성

[그림 1]에서 ‘기능소’의 경계에 위치한 한자어들 ‘교복(校服), 화가(畫家), 침실(寢室), 신어(新語), 명의(名醫), 폐품(廢品)’을 다시 주목해보자. 이들 예에서 ‘복(服), 가(家), 신(新), 어(語), 명(名), 폐(廢), 품(品)’은 비자립 어근으로서 다른 비자립 어근과 결합하여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고 있지만, 국어 단어 형성에서 포착되는 이들의 주요 기능 파생 접사로서의 기능이다. 이처럼 국어 단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자어 접사들의 경우 그 기원은 어근이었을 것이기에<sup>14)</sup>, 여전히 어근으로서의 기능이 남아 접사와 어근 두 가지 문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어 형성 과정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한자어 접미사 ‘-녀(女), -력(力), -족(族)’<sup>15)</sup> 역시 어근으로 활용된 사례가 쉽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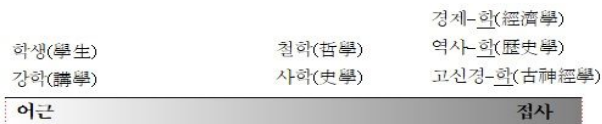
	녀(女)	력(力)	족(族)
접미사	약혼녀 / 껌딱지녀	경제력 / 소셜력	여진족 / 호캉스족
어근	여권(女權), 남녀(男女)	역기(力器), 차력(借力)	족보(族譜), 귀족(貴族)

14) 외래 요소를 받아들일 때 문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구분관 외, 2015: 156), 한자어 접사가 어휘적 요소로부터 문법화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15) 2014년 신어 기준, ‘-녀(女), -력(力), -족(族)’에 의해 만들어진 신어는 32개로, 접미파생어의 57%, 전체 신어의 13%를 차지한다. 이는 고유어 접사와 비교하여 생산성이 높은 것이다.

고유어 단어 형성 요소의 경우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문법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드물기에, 한자어의 이러한 특성 또한 설명을 요하는 문제가 된다.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문법적 분포를 보일 때 그 범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어떤 대상이 어근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접사도 될 수 있다고 보는 ‘다범주적 입장’과 하나의 형태는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야 한다고 보고 한쪽 범주로 귀속시키는 ‘단일 범주적 입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편, 학교문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교과서에서 ‘-族(족), -器(기)’ 등 소수의 한자어 접사를 ‘접사’라 명기한다는 점,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2음절 한자어 전체를 어근으로 처리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한자어를 기능 단위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2음절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어 각각은 분석 단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형식이 두 가지 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특성을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정리하면, 학교문법에서는 한자어를 포함한 복합어를 기능 단위 차원에서만 다룸으로써 생산적 한자어가 보이는 분포의 다양성 문제를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음절 한자어 중에서도 그 생산성이나 구성의 투명성을 고려할 때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특히 접사로서 자립 형식과 결합하는 한자어 중 다수는 1음절 비자립 한자어와 결합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래 [그림 2]의 ‘철학(哲學), 사학(史學)’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그림 2] 생산적 한자어 단어 형성 요소의 유형

일반적으로 한자어 비자립 어근끼리 결합한 2음절 한자어의 구성 요소들은 접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sup>16)</sup> 그러나 분명 ‘강학(講學)’의 ‘학’과 ‘사학(史學)’의 ‘학’은 언중에게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후자의 ‘학’은 오히려 ‘역사학’의 ‘학’과 계열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국어 어휘 속 한자어에 어떠한 범주를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명확한 경계선을 긋기 어려운, 연속적 특성을 가진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이 2자어 구성인지 3자어 구성인지에만 기준하여 내부 요소의 분석 가능성 및 그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한자어가 가진 이 같은 속성은 단어 형성 단위의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한자어 접사를 제시하지 않는 문제와 연결된다. 그런데 한자어 접사는 국어 언중들에게 명백히 접사로 인지되고 있고, 또 새말 형성에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체이다. 따라서 설명 체계상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여 주요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일 형태가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양상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6) 김창섭(2013)에서도 2자어 기본 구성에 쓰이는 한자와 접두사나 접미사 처럼 쓰이는 한자를 원사(元辭)와 차사(次辭)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차사는 원사와 결합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다.

“차사는 원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Aβ 구성은 정규 차사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사는 결합 상대와 문법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합 상대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김창섭, 2013: 173).”

〈표준국어대사전〉의 처리 방식도 이와 같이 보인다. 접사 ‘-학(學)’의 예시어로는 ‘경제학, 국어학, 물리학’ 등 ‘자립 형식+-학’의 구조를 갖는 3자 한자어만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 ‘문학, 사학’ 등은 복합어 표지(-) 없이 ‘문학’, ‘사학’으로 등재되어 있다.

### Ⅲ. 『언어와 매체』 교과서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제시 양상

#### 1. 개관

이 절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활용 양상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전술하였듯 이는 전체 사례 대비 한자어 제시 정도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교과서에서 한자어 사례를 다루는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수를 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한자어 노출이 의도적으로 제한되는 국면과 그렇지 않은 국면이 있는지, 제시된 한자어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고 있는지 등 그 활용 맥락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한다.

다음 <표 1>은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의 단어 형성 단원에 제시된 한자어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들 사례를 중심으로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활용 양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sup>17)</sup>

<표 1> 『언어와 매체』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사례

	단어와 형태소	단어의 짜임	새말의 형성
창비	없음	없음	열공, 국대 부먹과, 짹먹과
천재 교육	없음	헛소문	실버산업(silver産業), 누리집, 꽃미남, 엄지족, 캥거루족, -족(族), 강추(強推), 차계부, 셀카족, 먹부싥
		없음	문상, 취준생

17) 용어상의 차이는 있으나 5종의 교과서는 ‘형태소-단어의 짜임-새말의 형성’ 부문으로 나누어 단어 형성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 구조에 따라 사례를 제시하였다.

미래엔	없음	향기롭다, 본받다	꿀피부, 꽃미남, 대인배, 몸치, 개취, 컴맷(컴퓨터 + 盲)
		없음	무꺼풀(무(無)-+ 꺼풀), 낚사친, 새집 중후군, 글손
비상	없음	공부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무사히, 선생님	꽃미남, 엄지족, -족(族)
	덕	동짓달, 덕, 분수, 만족, 고독	
지학사	없음	본받다	시간이동기, -기(機)
	내일 개학(開學), 휴학(休學), 방학(放學), 학원(學院), 면학(勉學), 개교(開敎), 휴교(休校), 폐교(廢校), 등교(登校), 하교(下校)	시부모, 단팔죽, 큰형, 본받-	

〈표 1〉과 같이 단어 형성 단원의 한자어 사례를 정리한 결과, 대략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었다.

- (1) 교과서별 사례의 규모와 제시어의 성격이 상이하다.
- (2) 형태소 분석 부문에서 2음절 이상의 한자어를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18)</sup>
- (3)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한자어는 복합어의 직접 구성 성분으로서만 다루어지며, 분석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sup>19)</sup>

18) 유일하게 〈지학사〉가 2음절 한자어 분석을 통해 비자립적 어근의 지위를 갖는 한자어 형태소를 인식하게 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 맥락 및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9) 예외적으로 〈비상〉의 경우는 ‘동짓달, 분수, 만족, 고독’이 포함된 글을

- (4)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의 경우 ‘단어의 짜임’ 부문이 아닌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 제시된다.

먼저, (1)번 양상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포함한 단어 형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기술 지침이 부재했던 탓에 동일한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집필자에 따라 사례 선정 및 활용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사례 활용과 관련한 ‘합의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하 (2)~(4)는 한자어가 가진 특성을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양상들이다. 합의되지 않은 지점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거나, 심화 활동을 통해 탐구 소재로 활용하거나, 차원을 달리하여 ‘예외적’ 사례로 제시하는 등의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방식은 모두 한자어 단어 형성과 관련한 교육적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며 심도 있게 살피고, 그 의의와 한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2절에서는 (2)~(4)의 특징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sup>20)</sup>

---

주고, 합성어와 파생어를 찾아 분류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과서의 경우 형태소 분석 장면에서 한자어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기에, ‘분수, 만족, 고독’의 분석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한자어를 분석하는 방법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분류 대상에 포함하여 다루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한 처리라 보기 어렵다.

- 20) 편의상 ‘형태소 분석 부문, 단어의 짜임 부문, 새말의 형성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형태소 분석 부문은 특징 (2)와, 단어의 짜임 부문은 특징 (3)과, 새말의 형성 부문은 특징 (4)와 관련된다.

## 2. 부문별 한자어 활용 양상

### (1) 형태소 분석 부문과 한자어

형태소 분석 부문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한자어 사례를 최대한 배제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학사〉를 제외한 4종의 교과서들은 형태소 개념을 설명하는 본문에서도, 형태소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활동에서도 한자어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다.<sup>21)</sup>

… (다)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나눈 것으로, 이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위의 문장에서 ‘비구름’은 ‘비’와 ‘구름’으로 나누어도 본래의 뜻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구름’을 ‘구’와 ‘름’으로 나누게 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구름’은 하나의 형태소가 된다 ……

(방민호 외, 2019: 76, 밑줄은 필자)

형태소 단위에 대한 얇은 다른 문법적 얇을 위해 전제되는 선행적 얇으로서(제민경, 2015: 135) 그 교육적 가치가 크다. 학습자는 형태소 개념을 통해 언어에 대한 분석적 인식을 보다 정교화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분석적 인식이 그다음 단계의 문법적 사고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중핵 개념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은 단어뿐 아니라 문장, 그리고 그 이상의 단위들을 분석적 시각으로 수용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기에 효과적인 개념 인식을 위한 섬세한 교육 설계가 요구된다.

그런데 형태소는 학습자에게 매우 낮은 개념이다. 명확해진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접하던 개념인 단어, 문장과는 차원이 다른 낮셈이다.

21) 〈비상〉의 경우 형태소 분석 활동에 한자어 ‘덕(德)’이 포함되어 있으나, 자립적인 1음절 한자어이기에 별도의 분석을 요하지 않는다.



낮선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 학습자에게 사례는 매우 주요한 인식 통로이다. 이때 ‘전형적인 사례’는 추상적인 문법 개념을 인식적으로 구성하는 대표적인 표상 방식(이관희, 2015: 72)으로서, 초기 개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비-구름’과 같은 사례를 통해 형태소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방민호 외(2019)를 비롯, 『언어와 매체』 5종의 교과서의 기술 방향은 적절하다 할 수 있겠다.<sup>22)</sup>

그런데 개념 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실제 언어에 대한 이해에 있으므로, 개념 학습에 최적화된 선별된 일부 사례만을 학습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초기 인식된 개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개념 정교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 개념 습득을 위한 도구로서의 사례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사례, 즉 실제성이 높은 언어 자료를 다루어 보는 경험 또한 교육의 심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본고가 상정하는 ‘문법 개념’과 ‘사례’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겠다. 본고는 개념의 이해 및 확장, 적용 과정과 관련하여 사례를 ‘도구적 사례-탐구적 사례-목적적 사례’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각각은 ‘낮선 개념을 초기 인식시키는 데 필요한 사례, 개념 이해의 깊이와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사례, 궁극적으로 이

- 
- 22) 이와 관련하여, 5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 집필 최종 단계에서 ‘동화책’이 ‘이야기책’으로 교체된 사례가 주목된다. 사례의 성격에 따른 개념 인식의 수월성을 고려한, 교과서 집필자들의 고심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에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행된 『문법』은 제1차 고등학교 단일 교과서이다. (중략) 한자어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심의본(1984)에서는 ‘동화책’이라는 예문이 나오고 이 때 ‘동화’를 형태소 ‘동’과 ‘화’로 분석하였지만 1985년 『문법』은 이 ‘동화책’을 ‘이야기책’으로 바꾸어 의존성을 가지는 한자의 형태소 분석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형용, 2016: 73, 밑줄은 필자)

해하기 바라는 목표로서의 사례'로 구체화된다.<sup>23)</sup>


〈표 2〉 개념 학습 단계에 따른 사례 유형

도구적 사례	탐구적 사례	목적적 사례
초기 개념 인지	개념 인식의 깊이와 지평 확장	활용 빈도가 높은 실제 언어

〈표 2〉의 구분에 따르면 형태소 개념과 관련하여 한자어는 탐구적 사례이자 목적적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바 한자어는 형태소 분석에 있어 비전형적인 사례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사용 빈도와 생산성이 높은, 효과성 측면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 목적적 사례인 것이다.

5종의 교과서 중 유일하게 한자어를 형태소 분석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이삼형 외(2019)로, '탐구적 사례'로서 한자어 사례를 제시한다. 이 교과서 역시 형태소 개념을 제시하는 본문에서는 '발자국' 등의 고유어 사례를 제시하였다. 역시나 형태소 개념의 1차적 인지를 위한 도구적 사례로 고유어 사례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개념의 확장을 의도한 학습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열관계가 분명한 2음절 한자어 사례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제시한다. 이들 사례를 통해 형태소 개념을 정교화하는 한편 어휘력 신장 등의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성이 높은 한자어에 대한 분석적 인식력을 높이고자 한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23) 물론 이들 간의 경계는 유연한 것이며, 하나의 사례가 때에 따라 둘 이상의 유형에 속할 수 있다.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할 때, "학교"를 형태소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

! 적용하기

**3. 다음 활동을 통해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漢字)를 각각 형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자.**

(1) 다음 단어들을 참고하여 '학교(學校)'라는 단어를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개학(開學)	휴학(休學)	방학(放學)	학원(學院)	면학(勉學)
개교(開校)	휴교(休校)	폐교(廢校)	등교(登校)	하교(下校)

(2) (1)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學)'과 '교(校)'를 형태소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이삼형 외, 2019: 87)

이규범(2019) 등에서도 지적인 바 있듯이 문법 능력이 현실 언어 생활로 확장되는 것을 의도한다면 조어력이 뛰어난 한자어 사례를 단어 형성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낯선 개념을 인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학습자에게 비전형적 사례에 속하는 한자어를 처음부터 제시할 수는 없다. 이에 위와 같이 전형적 사례를 통해 1차적으로 개념을 인지한 후 이를 심화, 확장하는 맥락의 사례로 한자어를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다.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습득한 낯선 개념을 핵심 속성이 공유된 비전형적 사례들로까지 확장하는 가운데 해당 개념에 대한 구성을 정교화해 갈 수 있기(이관희, 2015: 77) 때문이다. 특히 위 활동의 경우 2음절 한자어를 제시하되, 계열관계를 통해 개별 구성 요소를 인식하기 수월한 무리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활동의 수월성 및 효과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24)</sup>

24) [그림 1]을 기준으로 보면 '기능소'에 가까운 비자립 어근들을 포함한 사례이다. 이들의 경우 출현 빈도가 높으며 그 의미가 비교적 일관되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식별하기 쉽다.

이상 형태소 분석 부문에서는 한자어 사례를 거의 노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개념 인식과 사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처리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논의하였다. 다만 개념 인식의 확장, 현실 언어생활로의 전이 등을 고려할 때 다수의 교과서에서 탐구적 사례, 목적적 사례로서 한자어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삼형 외(2019)에서와 같이 계열관계가 분명한, 비교적 친숙한 한자어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분석적으로 다루어 보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 (2) 단어의 짜임 부문과 한자어

아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어의 짜임 부문의 주요 내용은 복합어가 어떠한 구성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적용 활동이다. 이때 단어의 구조는 ‘직접 구성 성분’ 차원에서 분석된다.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單一語),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졌거나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複合語)라고 한다. 복합어 가운데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合成語)라고 하고,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派生語)라고 한다.

(이삼형 외, 2019: 84, 밑줄은 필자)

형태소 분석 부문에서 한자어가 최대한 배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는 한자어를 포함한 복합어의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은 단어의 짜임 부문 본문에 제시된 한자어를 포함한 복합어 사례들이다.

헛소문, 공부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무사히, 선생님, 본받다

‘본받다’를 제외하면 모두 2음절 한자어가 고유어 접사와 결합한 구성이다. 이때 2음절 한자어는 파생어를 이루는 직접 구성 성분의 하나로 언급될 뿐 그 이상의 분석 대상은 되지는 않는다. 단어의 짜임 국면은 형태소 분석 국면과는 달리 한 단계 더 실제적인 언어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에 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기술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다만, 어근으로서 한자어가 포함된 사례는 다루면서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가 포함된 사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은 자연스럽지 않다. 한자어 접사의 경우 고유어에 비해 생산성이 높으며, 규범적으로도 접사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바, 파생어를 다루는 장면에서 접사의 사례로 제시됨이 마땅할 것인데, 다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는 한자어 접사가 포함된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어의 짜임>	<새말의 형성>
<p>‘길이’, ‘멘입’, ‘치솟다’처럼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 중에서 어근 앞에 붙는 접사가 접두사이다.</p> <p><u>한-</u>: 한시름, 한가운데, 한여름</p> <p><u>헛-</u>: 헛기침, 헛수고, 헛돌다, 헛디디다</p> <p><u>맨-</u>: 맨발, 맨손, 맨땅, 맨주먹, 맨입</p> <p>접사가 어근 ‘뒤’에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접미 파생어이며, 이때 어근 뒤에 붙는 접사는 접미사이다. 접미사와 접미 파생어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p>	<p>줄임 말 외에도 이미 있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파생하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 그리고 ‘<u>엄지족</u>’은 명사 ‘<u>엄지</u>’에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빠르게 쳐서 보내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 새말을 계속 쓰이기도 하고,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한다.</p>

-질: 손질, 도둑질, 부채질, 걸레질 -이: 놀이, 먹이/깊숙이, 수북이 -하다: 공부하다, 생각하다/건강하다, 행복하다 -롭다: 명예롭다, 신비롭다, 자유롭다 -히: 조용히, 무사히, 나란히	
--------------------------------------------------------------------------------------------------------------------------	--

(이관규 외, 2019: 104-107, 밑줄은 필자)

이관규 외(2019)의 예를 보면,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는 한자어 접사가 완전히 배제되고,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 한자어 접사 ‘-족(族)’이 포함된 ‘엄지족’이 유일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파생어 형성을 논의하면서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가 적고 공시적 생산성이 없는 고유어 접두사로 후보를 한정하다 보면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 예시어가 교과서에 포함되게 되어(안소진, 2018: 68) 오히려 학습자에게 낯선 어휘를 이해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윤구희, 2009: 197-198).

앞서 한자어의 다기능성이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한자어 접사를 배제하게 하는 배경이 됨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접사로서의 생산성이나 친숙성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직접 구성 성분 파악을 중심으로 한 지금과 같은 교과서 기술 방식을 유지한다면 이들 생산적 한자의 다기능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육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짜임 국면에서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확인한 바 단어의 짜임 부문은 직접 구성 요소로서 한자어를 다루고 있기에, ‘-학(學), -족(族)’ 등은 접사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생산적 한자어의 다기능성을 탐구 주제로 다룰 수 있다. ‘사학(史學)-역사학(歷史學), 귀족(貴族)-캐거루족(族)’ 등을 ‘탐구적 사례’로 제시하여 한자어 접사로 인식하고 있던 ‘-학’,

‘-죽’이 또 다른 문법적 지위를 가지고 언어 형식을 구성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활동을 구안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탐구의 궁극적 목적이 ‘접사인가 어근인가,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를 분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1. 다음 활동을 하며 단어와 형태소 및 단어의 짜임을 정리해 보자.

㉠나무는 덕을 지냈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중략)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도 알고, 함박눈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작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파리 움작 않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나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또 고독을 즐긴다.

- 이양하, 「나무」

- (1) ㉠을 단어와 형태소로 분석해 보자.
- (2) 이 글에서 파생어와 합성어를 찾아 써 보자.

파생어	
합성어	

(이관규 외, 2019: 109)

위 활동의 경우 단어의 짜임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단어를 분류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분수(分數), 고독(孤獨)’과 같은 한자어의 경우 관점에 따라 ‘단일어’ 혹은 ‘합성어’로 달리 분류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칫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분류’ 그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경계 짓기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와 같은 다기능적 사례들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단어의 짜임 부문은 복합어의 형성 구조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문법적 사고를 돕기 위한 인지적 도구인 ‘어근, 접사, 복

합어,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등의 개념이 최종적인 교육 내용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이들 개념을 조작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현상들을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념을 발판 삼아 언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단어 형성 요소를 어근과 접사로 분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복합어들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중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다면 생산성 높은 한자어 접사들을 교육 내용으로 수용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 (3) 새말 형성 부문과 한자어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는 '새말'이라는 주제하에 한자어 및 외래어 요소를 포함한 복합어, 전형적인 합성과 파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혼성어, 축약어' 등이 두루 소개된다. 이에 이 부문은 결과적으로 단어 형성 단원의 세 부문 중 한자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배제되었던 한자어 접사 역시 새말 형성 부문에서 명시적으로 기술된다.

새말을 만드는 데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어근을 결합하는 방식과 어근과 파생 접사를 결합하는 방식이 모두 사용된다. '꽃미남'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고, '업지족', '캥거루족'은 어근에 파생 접사 '-족(族)'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단어들의 첫 말을 따서 새말을 만들거나, 두 단어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절단한 후 각 부분을 결합하여 새말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사용된다. ...

(민현식 외, 2019: 55, 밑줄은 필자)

복합어 가운데는 합성어나 파생어로 간주하기 힘든 것도 있다. 최근 축약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그 예이다. '열공(열심히 공부함)'과 '국대(국가 대표)'는 두 단어의 앞 음절만 따서 결합한 축약어이고, '칼제비(칼국수와 수제비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음식)'와 '쌈추(쌈용 배추)'는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따서 결합한 축약어이다. 이들 축약어는 파생어보다는 합성어에 가깝지만 전형적인 합성어와는 차이가 있다.

(최형용 외, 2019: 68, 밑줄은 필자)

위 기술을 통해 이 부문이 ‘개념 체계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들을 부담 없이 담아내면서 현실 언어를 반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구도는 적절한 것일까? 단어 형성 교육의 목표가 ‘단어에 대한 구조적 이해 능력’과 ‘기존 언어재를 활용한 어휘적 표현 능력’ 향상에 있다면, 교육에서 제공해야 할 경험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일 것이다.

- ▶ 단어를 구조적으로 이해해 보는 경험
- ▶ 의도를 단어라는 언어 단위로 표현해 보는 경험

현재의 단어 형성 단원의 구도에 따르면 전자는 ‘형태소 분석,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후자는 ‘새말 형성’ 부문에서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 새말 형성 부문은 단어의 짜임 부분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례들을 수용하는 데 지면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정작 필요한 ‘표현으로서의 단어 형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본격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단어의 형성과 분석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에(황화상, 2001; 최형용, 2016ㄴ; 오규환, 2016), 분석적 관점의 단어 분류 체계로 단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려 하거나, 형성의 원리로 단어를 분석하려 할 경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여 ‘단어의 이해:새말 만들기’와 같은 구도로 각 국면의 교육 내용을 독립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단어의 이해:새말 만들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것:비전형적인 것’의 구도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어의

짜임'에서 고유어를 중심으로 한 합성과 파생의 사례를 다루고, '새말 형성'에서는 외래어 및 한자어를 포함한 복합어, 합성과 파생 개념으로 명확히 설명되기 어려운 축약어, 혼성어를 다루는 형국이 되어 있는 것이다.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포함한 복합어도, 절단과 축약 과정을 거친 복합어도 모두 기존하는 단어들이기에 '단어의 짜임' 부분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들을 새말 형성 부문으로 가져와 기술하는 것은 '단어의 짜임:새말의 형성'이 아니라 '단어의 짜임 1:단어의 짜임 2'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새말 형성 부문의 교육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고, 또 어떤 사례를 포함해야 할까? '이해'의 국면에서 이해를 위한 개념적, 절차적 도구 및 관련 사례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했다면, '표현'의 국면에서는 표현의 원리 및 전략이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자어는 표현을 위한 자원으로서 초점화될 수 있다. 뜻글자인 까닭에 고유어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길어질 수 있는 개념이 한자어로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구본관 외, 2015: 154), 비자립 형태소인 한자어들을 결합시킬 경우 그 자체로 통사 원자인 자립형태소를 결합하는 경우에 비해 내적 응집력도 높아져 단어성(wordhood)<sup>25)</sup>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박혜진, 2019: 123). 또한, 한자어들은 어근, 접두사, 접미사 등 매우 다양한 기능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 생산적인 언어재로서의 가치가 높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유어, 외래어와 함께 표현의 선택항을 구성하는 언어 자원으로서의 한자어에 주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5) 언어 형식이 인지적으로 단어에 가까운 정도, 다시 말해 화자로 하여금 어떠한 언어 형식이 단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일컬어 '단어성(wordhood)'이라 한다. 다시 말해 구(句)나 문장과 변별되는 '단어 다움'을 가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단어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찬영(2016), 최형용(2012), 박혜진(2019)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상 생산적인 한자어 요소를 포함한 복합어들이 새말이라는 명목 하에 단어의 짜임이 아닌 새말 형성 부문에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소를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수용하는 한편, 새말 형성 부문에서는 실제 새말 형성의 원리를 교육 내용화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한자어는 고유어, 외래어와 함께 표현을 위한 선택항을 구성하는 언어 자원으로 주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IV.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활용 방안

본고는 한자어를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 내의 ‘단어 형성 요소’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념 혼동 및 범주 충돌 가능성들을 고려하되, 그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자어를 최대한 생산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자어의 단어형성론적 특징을 정리하는 한편, 이것이 단어 형성 교육 내용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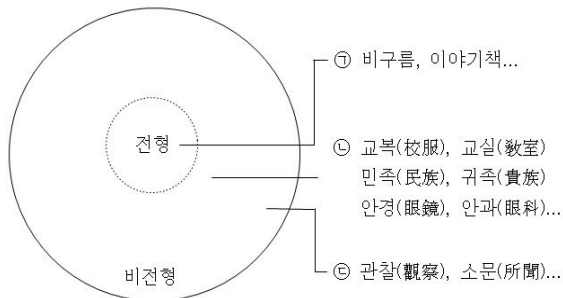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여 도출한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활용 방안’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 형태소 분석 부문에서, 2음절 이상의 한자어 사례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제시한다.
- ▶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한자어 접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 ▶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를 초점화한다.

위 세 가지 방향은 Ⅲ장 각 절의 말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으나, 본 장에서 보다 상세히 기술해 보기로 한다.

## 1. 한자어 사례의 선별적·단계적 제시

문법 교육에서, 언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문법 개념’과 이와 관련되는 ‘사례’는 교육 내용의 두 축을 이룬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교수·학습의 단계에 따라 달리 설정된다.<sup>26)</sup> 한자어는 단어 형성 교육을 통해 이해되고 생성되기를 기대받는 ‘목적적 사례’이다. 국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 단어 형성 장면에서의 생산성 등을 고려할 때 한자어 사례는 그 자체로 교육을 통해 이해해야 할 ‘목적’이 되는 것이다. 한편, 형태소 인식 국면에서 한자어는 탐구적 사례이다. 한자어를 어디까지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 본질상 엄격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한자어는 형태소 분석의 전형적 사례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초기 개념 인식을 도울 수 있는 도구적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계열 관계가 분명한 일부 한자어는 형태소 개념을 확장하고, 목적으로서의 한자어에 접근하게 하는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3] 형태소 분석 맥락에서의 사례의 전형성

26) 본고는 그 관계를 반영하여 사례의 유형을 ‘도구적 사례, 탐구적 사례, 목적적 사례’로 정리한 바 있다(3장, <표2>).

[그림 3]은 형태소 분석 맥락을 가정하고, 고유어와 2음절 한자어를 전형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형태소의 정의에 따라 ‘비-구름, 이야기-책’으로 명확히 분석되는 ㉠의 사례는 형태소 개념 습득의 초기 단계에서 도구적 사례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sup>27)</sup> 반면 ㉡과 달리 각 구성 요소의 자립성이 없어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기 쉬운 ㉢의 사례들은 초기 개념 형성 이후에 탐구적 사례로 제시되기에 적합한 것들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단어 내에 포함된 각 형태소가 다양한 단어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계열관계를 통한 분석적 인식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통해 특정 형태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적합한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소 부문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과 같은 전형적 사례를 통해 초기 개념을 형성하게 한 후, ㉢과 같이 비교적 계열관계가 분명한 한자어 사례들을 제시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목표 사례에 친숙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한자어 사례의 비전형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개념 심화 단계)’에, ‘적절한 사례군(계열관계를 통한 인식이 용이한 2음절 한자어류)’을 선별하여, ‘적절한 방법(자료 탐구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교육적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 2. 생산적 한자어 접사의 적극적 제시

국어 단어 형성에서 보이는 생산성을 고려할 때 한자어 접사는 ‘체

27) 물론 모든 고유어 사례들이 형태소 분석을 위한 전형적 사례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달걀(< 돌기않 < 구방> ← 돌 + -익 + 았)’의 경우 통시적으로 어휘화를 겪긴 했으나 여전히 ‘닭’과 ‘알’로의 분석적 인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례 역시 초기 형태소 개념 습득 단계에서 도구적 사례로 활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본고의 초점이 한자어에 있기에 [그림 3]의 예시들을 선별적으로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계 외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 제시될 것이 아니라,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고유어 접사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그 분포가 다양하여 범주 설정과 관련한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으나, 국어 단어 형성 과정에서 접사로서의 기능이 현저하다는 점, 또 교과서의 단어의 짜임 부문이 직접 구성 성분 분석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서도 언급하 바,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이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한자어 접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제안한다. 물론 이때 한자어의 다기능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례의 제시 순서 및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공식적인 단어 형성에 있어 가장 현저한 기능인 '접사'로서 대상을 인식하게 한 후 다른 범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한자어 단어 형성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범주의 연속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족(族)’의 예를 들어 본고가 제안하는 바 생산적 한자어 접사의 수용 방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 접사로서의 -족(族) 인식</li> <li>- 생산적인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족(族)’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족(族)에 대한 인식의 확장</li> <li>- 족(族)의 다양한 분포 이해</li> <li>- 범주의 연속성 이해</li> </ul>
여진+-족 엄지+-족 켜겨루+-족	여진족, 엄지족, 켜겨루족 vs 민족(民族), 귀족(貴族) 족장(族長), 족보(族譜)

### 3.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 초점화

아래 교육과정 기술에서도 알 수 있는바, 단어의 내부 구조를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이해’의 국면과 의도를 어휘적으로 언표화하는 ‘표현’의 국면 모두 단어 형성 교육 내용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12언매02-03]

단어의 짜임과 가상 과정을 탐구하고 이를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단어의 짜임과 새말의 형성을 탐구하고 국어생활에 활용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가상 공간에서 널리 쓰이는 새말이 어떤 짜임을 갖는지, 기존의 단어와 형성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스스로 새말을 만들어 보는 활동 등을 포함하여 능동적인 국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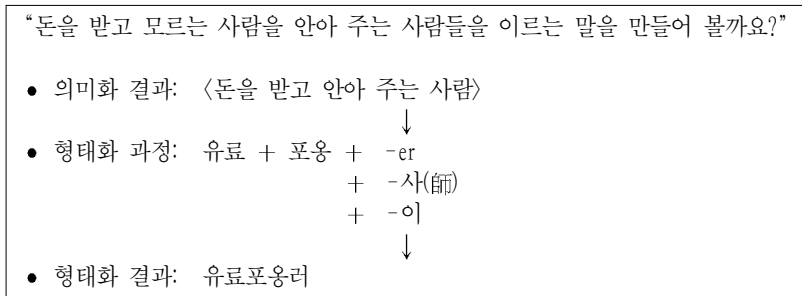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단어의 짜임에 대한 이해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표현 능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근, 접사, 합성, 파생, 혼성’ 등은 하향적으로 단어를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한 도구이지 의도를 단어라는 언어 단위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장치는 되지 못한다. 이에 진정한 새말 형성 능력, 다시 말해 의도를 어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면 ‘표현 원리’를 토대로 한 새말 형성 국면의 단어 형성 교육 내용이 구체화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자어는 분석 대상이 아닌 ‘활용 자원’으로 초점화 되어야 한다. 단어 형성 과정에서 한자어는 유다른 생산성을 발휘하거나,<sup>28)</sup> 고유의 내포적 의미를 수반하면서 고유어, 외래어

28) 음절이 1형태소로 인정되는 것이 고유어나 외래어에서는 회피되는 경향이 있는데(주지연, 2017: 75) 한자어는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음절당 부담할 수 있는 의미량이 크다. 즉 더 적은 음절 안에 풍부한 개념을 담아낼 수 있다. 또, 문자 하나하나가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단(clipping)을 통한 단어 형성에도 유리하다(이광

등과 선택항의 관계를 이루는데, 단어 형성 교육에서는 바로 이러한 지점을 포착하여 ‘단어 형성 요소로서의 한자어 활용 전략’을 교육 내용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형태화 과정의 선택항으로서의 한자어



[그림 4]의 사례는 박혜진(2019ㄱ)에 제시된 명명 과제 수행 양상 중 하나로, 형태 형성 과정에서 어종과 관련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보여 준다.<sup>29)</sup> 〈돈을 받다, 안아 주다〉를 고유어 그대로 단어화하면 어떤 형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돈받고안아주기?’ 얼핏 보아도 단어성이 높지 않다. 이에 위 단어를 만든 명명 화자는 한자어 ‘유료

호, 1997: 153).

- 29) 박혜진(2019ㄱ)은 표현론적 관점(onomasiological approach)에서 단어 형성의 과정 및 원리를 기술한 연구이다. 그는 명명할 대상이 주어졌을 때, 즉 명명 동기가 발생했을 때 단어 형성 과정이 시작되며, 그 과정은 대상을 인식하여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의미 형성’, 의미 구조에 대응하는 구체적 형태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형태 형성’의 순으로 진행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들 과정을 관장하는 표현 원리로 ‘관계화의 원리, 초점화의 원리, 선택적 언어화의 원리, 가치 반영의 원리, 정보량 적정화의 원리, 형태 간결화의 원리, 유사성 추구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중 형태 형성 과정을 관장하는 원리인 ‘정보량 적정화의 원리, 형태 간결화의 원리’ 등이 한자어의 활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자어는 간결한 형태 안에 최대한의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有料)'와 '포옹(抱擁)'을 선택하여 의미를 형태화하였다. 한편, <~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형태화하기 위한 선택항으로 '-er, -사(師), -이'를 견주어 '-er'을 선택한 지점도 흥미롭다. 많은 경우 학습자들은 '-사(師)'의 내포적 의미로 [+전문직]을 환기하였고, 이에 중립적 표현인 '-er'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한자어가 가진 표현의 경제성, 의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도를 단어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그림 4]의 사례는 새말 형성 부문의 교육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하는지, 또 그 안에서 한자어 관련 내용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을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새말의 형성 국면에서는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명명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언표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언어 자원 중 한자어를 선택하는 맥락을 한자어의 특성과 함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sup>30)</sup>

## V. 결론

단어 형성 교육에서 한자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한자어 관련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할까? 본 연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단어 형성 교육에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한자어 사례를 수용해야 함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일일 것이기에

30) 지면 관계상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그림 4]의 사례로 갈음하였다. 표현 과정을 초점화한 단어 형성의 원리 및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 활용 전략에 대해한 자세한 논의는 박혜진(2019ㄱ)를 참조하기 바란다.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한자어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들을 참고하여 한자어 단어 형성을 고유어와 같은 체계로 기술할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점검하였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실제 교육 내용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5종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단어 형성 단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생산적인 한자어 접사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한자어 접사를 포함한 복합어, 혼성·축약어 등이 소위 ‘비전형적 사례’로서 단어의 짜임 부문이 아닌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적 양상을 확인하였다. 형태소 분석 부문에서 한자어가 배제되고 있는 양상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태소 개념 습득 단계에서 비전형적 사례인 한자어를 우선 제시하지 않는 것이 학습의 수월성 측면에서 타당한 선택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한자어 수용 방안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1) 형태소 분석 부문에서, 한자어 사례를 선별적·단계적으로 제시한다.
- (2) 단어의 짜임 부문에서, 한자어 접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 (3) 새말의 형성 부문에서, ‘표현 자원’으로서의 한자어를 초점화한다.

단어 형성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어 줄 구체적인 한자어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하였으나, 여전히 추상적인 논의에 머문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한자어 활용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을 ‘비전형성, 다기능성’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고려하여 한자어 사례를 선정·배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실제 사례 선정 및 내용 기술과 관련한 한 단계 더 구체화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주제어 : 한자어(Sino-Korean word), 단어형성법(word-formation), 문법교육(grammar education), 단어(word), 형태소(morpheme), 신조어(new coinage), 『언어와 매체』(*Language and Media*), 교과서(textbook), 사례(example)

## 참고문헌

- 구본관 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2014), 「2014년 신어 조사 보고서」.
- 김창섭(2013), 「‘-的’의 두음 경음화와 2자어, 3자어론」, 『국어학』 68, 국어학회, 197-188쪽.
- 남가영(2013), 「학습자 오개념 형성 요인으로서의 교과서」,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109-137쪽.
- 노명희(1990), 「한자어의 어휘형태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명희(2006), 「한자어 문법 단위와 한자어 교육」, 『국어국문학』 142, 국어국문학회, 465-489쪽.
- 노명희(2014), 「한자어 형성과 기능 단위」, 『한국어 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159-185쪽.
- 박혜진(2019-Ⅰ), 「표현론적 관점의 단어 형성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진(2019-Ⅱ),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 활용 양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4(3), 국어교육학회, 137-165쪽.
-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소진(2018),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단어 형성법 부문의 한자어 자료에 대한 검토」, 『어문연구』 46(2), 어문교육연구회, 55-79쪽.
- 오규환(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구희(2009),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7(1), 187-211쪽.
- 이관희(2015), 「학습자 지식 구성 분석을 통한 문법 교육 내용의 조직과 표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광호(1997),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 연구」, 『관악어문연구』22, 519-542쪽.
- 이규범(2019), 「중학생의 한자어 형태소 인식 조사 연구」, 『한국어문교육』 2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89-121쪽.
- 이찬영(2016), 「혼성어 형성에 대한 인지적 고찰」, 『형태론』18(1), 형태론연구회, 1-27쪽.
-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지연(2017), 「한국어 한자 형태소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 『어문연구』 45-1, 67-98쪽.
- 최형용(2006), 「한자 접사와 고유어 접사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19, 한중인문학회, 339-361쪽.
- 최형용(2012), 「순화어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한중인문학연구』36, 한중인문학회, 127-159쪽.
- 최형용(2016ㄱ), 「형태론, 쟁점들에게 길 찾기」, 『어문연구』 44, 어문교육연구회, 37-88쪽.
- 최형용(2016ㄴ),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Nida, E. A. (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자료)

- 최형용 외(2019), 『언어와 매체』, 창비.
- 이관규 외(2019), 『언어와 매체』, 비상.
- 민현식 외(2019),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방민호 외(2019), 『언어와 매체』, 미래엔.
- 이삼형 외(2019), 『언어와 매체』, 지학사.

## A Study on How to Use Sino-Korean Word for Word Formation Education

Park, Hye-jin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finding ways to use Sino-Korean word for word formation education.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word identified in the theory of Korean word-formation were discussed, and five kinds of 『Language and Media』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word, it was confirmed that Sino-Korean word have ‘non-typicality, versatility’ as a morpheme and a word forming element. In addition, as a result of textbook analysis,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se characteristics act as a cause of excluding or passively presenting Sino-Korean word in each phase of the word formation unit.

The concept of grammar is a tool to better understand language phenomena, so learners need to master the concept properly. But that is not the ultimate goal. The learner should be able to expand the acquired concept by himself and use it as a tool to interpret language phenomena. Therefore, this paper argued that Sino-Korean word should not be excluded unconditionally because it is not a typical case or because it does not fit a specific system.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presenting Sino-Korean word in an appropriate way at an appropriate time considering the stage

of learning is the direction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word formation education.

Finally, three ways to use Sino-Korean word for word formation education were proposed. The first is to selectively and stepwise present cases of Sino-Korean word in consideration of educational excellence, the second is to actively present Chinese character affixes in 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he third is to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word as a resource for forming words.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using Sino-Korean word in the word formation unit by considering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ino-Korean word and the context of educational content description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subjects who design word-formation education or describe textbooks later.

박혜진

소속: 서울대학교(시간 강사)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11동 217호

이 논문은 2021년 1월 23일 투고 완료되어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2월 19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되었음